2026년 1월 6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6)
-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테마형 패시브 ETF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 AI의 영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역시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한국 역시 정부 주도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32조원 규모가 AI와 로봇 분야에 투입될 계획(5년간)으로, 정책 모멘텀의 기대 역시 유효한 테마이다.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는 국내 휴머노이드 기업 가운데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 15개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하는 종목이 되겠다. 핵심 부품부터 로봇 제조, 소프트웨어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테마 ETF이다.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유동성 조건(시총 2천억원↑, 평균 거래대금 10억원↑)을 충족시키면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자동차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제조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 '기타 범용 일반 목적 기계 제조업'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해당 유니버스 종목들을 '휴머노이드 로봇' 키워드를 기준으로 LLM 기반 유사도 평가 모델에 반영하고, 유사도 점수 80%와 시가총액 점수 20%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상위 15개 기업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키워드 유사도 점수 50%와 시가총액 점수 50%의 기준을 가중 배분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대 비중을 15%의 Cap Rate(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업 종목은 6%의 Cap Rate 적용)로 제한하는 동시에 최소 1%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한다. 또한 핵심 종목으로 판단되는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상장될 경우 특례 편입도 진행될 수 있다.

상기 방법론을 반영한 상장일(1/6) 기준 종목 포트폴리오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두산로보틱스, 에스피지가 각각 10% 이상의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에스피지, 하이젠알앤엠, 로보스타, 뉴로메카, 삼현, 유진로봇, 현대오토에버, LG씨엔에스, 현대무벡스, 엔젤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클로봇까지 총 15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1월/4월/7월/10월 옵션 만기일 장 종료 후)에 걸쳐 진행된다. 0.50%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상장일	2026년 1월 6일 화요일
기초지수	KEDI 코리아 휴머노이드로봇산업 지수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50%
구성종목 수	15종목
비중결정방식	- 키워드 유사도 점수 50% 및 시가총액 점수 50% 기준 가중 배분
정기변경	연 4회(1, 4, 7, 10월 옵션 만기일 장 종료 후)

자료: KRX,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